

삶에 대한 열정, 그 열정에 대한 은유

마이클 래드포드 감독의 <일 포스티노>와 파블로 네루다

김경욱 | 소설가

영화 <일 포스티노>는 칠레의 민족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우체부 사이의 우정을 담은 영화로, 문학에는 문외한인 우체부 마리오가 대시인을 만나면서 차츰 시에 눈 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네루다에게 온 편지를 배달하면서 틈틈이 시를 읽던 마리오는 '은유'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에 눈뜨게 된다.

"자네는 우체통처럼 서 있었다네."

"장승처럼요?"

"아니, 장기관 말처럼 요지부동이었어."

"도자기 인형처럼 조용했죠."

"내 앞에서 은유나 직유를 쓰지 말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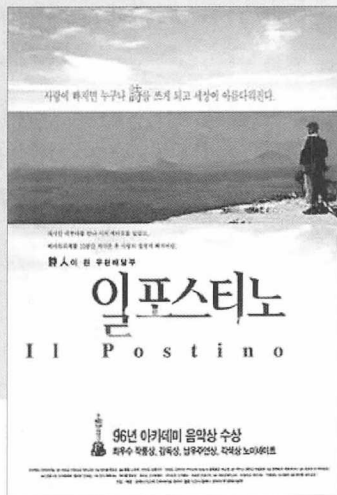
"은유가 대체 뭐죠?"

선문답 같은 이 대화는 이탈리아 작은 섬의 유일한 우체부와 그 우체부의 유일한 수취인인 칠레의 시인 사이에 오가는 말이다. 영화 <일 포스티노>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우정과 삶에 대한 열정을 아름다운 지중해의 풍광에 녹여내고 있는 한편의 시 같은 작품이다.

우체부와 시인의 우정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국에서 추방당해 이탈리아로 망명길에 오른다. 이탈리아 정부의 배려로 나폴리 근처의 작은 섬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이 시인이 망명생활을 하게 되면서 일 자리를 얻은 사람이 바로 마리오다. 평생 편지 한통 받은 적도 없는 그가 새로 맡게 된 일은 이 유명한 시인 앞으로 부쳐진 우편물들을 배달하는 일이다. 전 세계로부터 답지하는 편지는 대부분 여성들이 보낸 것들로 그것은 네루다가 쓴 연애시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한다.

수돗물이 없어 한달에 한번 들어오는 물 보급선만 기다리는 이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부쳐진



은유는 '이해'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영화 <일 포스티노>는 한 우체부가 은유를 깨우치고 시를 쓰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우편물의 대부분을 훑어지고 우체부는 매일 시인을 찾아간다. 틈틈이 네루다의 시집을 펼쳐 읽는 마리오는 메타포(은유)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점차 체득하게 된다. 특히 부둣가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매혹적인 처녀 베아트리카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짐으로써 그는 은유를 '이해'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된다.

은유를 느끼게 되면서 마리오의 자신이 처한 삶과 주민들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각성이나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어부의 그물을 '서글픈' 그물이

라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근원적인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츰 그는 네루다 시의 진면목에 공감하게 되고 둘 사이의 우정은 깊어 간다. 그러나 마리오와 베아트리카가 결혼하던 날 네루다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시인은 떠나고 우체부는 직장을 잃게 된다. 더 이상 배달할 편지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마리오네 네루다의 소식을 듣지만 그에게서 편지는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파블리또라고 짓는가 하면 네루다를 위해 섬의 파도소리, 바람소리,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소리를 녹음해 그에게 보내려 한다.

그 어떤 구호나 수사보다 진실된 은유

세월이 흘러 섬을 다시 찾은 네루다는 마리오가 정치집회에 참석해 자신에게 바치는 시를 낭독하려다 진압대의 출동에 놀란 군중들에 밧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가 녹음한 소리를 듣게 된다. 네루다가 그때 들은 것은 그 어떤 구호나 수사보다도 진실되고 감동적인 은유였다. 마리오가 녹음한 것은 단순한 소리들이 아니라 지중해의 풍광, 그리고 그것과 어우러진 삶 자체였으며 한편의 진솔한 시였던 셈이다.

대학시절 연애편지를 쓸 때 들춰보던 시집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루다가 스무살 때 쓴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정현중, 민음사)였다. 그런데 과 모임에서 팝송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로 여기던 그 시절, 이른바 운동권에서 그는 민중시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네루다 시의 폭넓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그의 시는 단순히 연애시나 민중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이고 그 열정에 대한 은유였다고 생각된다. 영화 <일 포스티노>는, 적어도 지중해 작은 섬의 한 우체부의 삶과 죽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